

보도시점 2026. 10. 30.(금) 15:00 배포 2026. 10. 30.(금) 14:00

권대영 1차관,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 개최

-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 구성을 통해 3개 주요 국책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추진
 - * ①한국형 녹색대 전환(K-GX), ②7대 SEED, ③3대 민생 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
- 한국형 녹색대 전환(K-GX), '26년·'27년 과제 총 130개 정상 추진 중
- 7대 SEED 프로젝트, 분야별 추진체계와 이행전략을 연내 구체화
- 3대 민생 프로젝트,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구체화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0.30(금) 14:00 관계부처 차관 등*과 함께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 키포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데이터처 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등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재정부 1차관 주재)」는 주요 국책과제 중 국민 파급효과가 크고, 전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①한국형 녹색대 전환(K-GX), ②7대 SEED, ③3대 민생 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개 주요 국책과제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및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한국형 녹색대 전환(K-GX) 전략(10.7일 발표)의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전체 151개 과제 중 중장기 과제를 제외한 '26년 과제 88개와 '27년 과제 42개 총 13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7대 SEED 프로젝트와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먼저, 7대 SEED 프로젝트는 분야별 추진체계와 이행 전략을 연내 구체화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실증·사업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3대 민생 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 수립을 위해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책과제들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10)	
		담당자	서기관 임동현	(dhlim87@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승찬	(mac529@korea.kr)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현영	(044-215-4581)
		담당자	사무관 안영신	(justice6589@korea.kr)



1. 추진배경

- 녹색전환(GX)은 포스트 중동전쟁 시대 **생존전략**이자, **대도약**의 발판
 - **기후리스크** 현실화, **에너지·공급망 복합위기** 속 GX는 국가 생존전략
 - 폭염·집중호우 등 극한기후로 우리경제의 생산성 저하 등 불확실성 증대
 - * '26년 상반기 전세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155조원(OECD)
 - 에너지 안보 등 구조적 취약성 보완, 화석연료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탄소감축은 **세계경제 아젠다**로 부상 → GX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
 -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26.1), 글로벌 RE100 요구 등 고려시 무역 의존도('24, 90.9%)가 높은 우리 경제에 GX는 선택이 아닌 필수
 - * 주요국(EU, 美, 日) 등은 청정에너지와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세계시장 적극 공략 중
 - 메가프로젝트 성공, 녹색 신시장 선점 위해 안정적 청정e 인프라 필요

2. 주요 내용

① 탄소중립을 넘어 경제성장 기회가 되는 “**신성장동력 K-GX**”

① 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 多배출 5대 업종* 등 탈탄소 전환 가속화

- * (철강) 수소환원제철 실증(~'30) 및 상용화('37), (석화) 전기로 NCC 기술개발(~'28)
(정유) 지속가능항공유 신원료 확보 기술개발(~'29), (시멘트) 클링커 사용저감 기술개발(~'30),
(반도체·디스플레이) 저온난화 공정가스 개발(~'30) 및 실증(~'35) 등

②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 집중 육성 → 녹색제조 3강 도약

- * ①전기차 ②배터리 ③태양광 ④풍력 ⑤SMR ⑥전력기기 ⑦전력반도체 ⑧히트펌프 ⑨수소 ⑩CCUS

③ 기후테크 기업 육성 및 스케일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 추진

- * 혁신 R&D(난제형·탐색형 등) 프로젝트 신설, 대기업·공공 연계 실증테스트 베드 확대,
TIPS내 기후테크 전용트랙 신설, 유망 기후테크 200개사 패키지(최대 100억원) 지원

④ 기업·대학을 중심으로 GX 분야 청년 전문인력 약 5만명 양성(~'30)

②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전국민이 누리는 “모두의 K-GX”

-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수요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모델* 발굴
*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 제주 탄소중립 혁신 프로젝트 등
- 취약업종·취약계층 등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햇빛·바람소득마을 등 국민 GX 이익 공유모델을 발굴·확산
* 노후산단·취약업종 기후 리스크 저감설비 투자 지원,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 등

③ 전폭적 정부 지원 및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K-GX”

- 10년간(‘26~‘35년) 1,000조원(재정 200조원+기후금융* 790조원+α) 지원
* 5대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을 통해 조성
-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주요 녹색산업 대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및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등 세제혜택 강화

3. 이행점검 결과

□ 전체 151개 정책과제 중 ‘26년(88개)·’27년(42개) 과제를 중점 점검
⇒ 법 개정·하위법령 마련, 제도개선, 사업집행 등 정상추진 중

① (입법과제)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고시 행정예고 완료(10.22일), 기타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강화

* 「탄소중립산업법」, 「산업그린전환 촉진법」,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② (제도개선과제) 태양광 기자재 경제안보품목 지정 완료(10.12일),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26.11월) 등 연내 마련 예정

③ (후속대책 발표)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 既발표(10.29일), 다배출업종별 GX 로드맵,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 등 차질 없이 마련

④ (집행과제) R&D, 인프라 지원 등 재정사업 및 기후금융* 등 정상 집행 중, ’27년도 예산 국회확정 이후 신규사업 등 이행 준비 철저

* ’26.9월 기준 54.8조원 공급, 연내 목표치인 56.7조원의 96.6%에 해당

별첨 2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 배경) 향후 10~20년을 내다보고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과 국가 전략자산을 육성하기 위해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 (추진 경과) 7대 SEED 발표(8.12) → 범부처 추진계획 수립(과기장관회의, 9.30) → 혁신본부 총괄체계 마련(10.8) → 경제관계장관회의-과기관계 장관회의 연석회의 협업방안 논의(10.28)
- (추진 목표) 7대 SEED를 국가 공동미션으로 추진하여, 부처 사업 기반 강화(Enable)와 민관협력·범부처 조정으로 원천기술 확보부터 산업화까지 미션 달성을 가속화(Accelerate)

◆ 7대 SEED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핵심미션과 이행전략을 연내 구체화하고, 기술개발·실증·사업화까지 범부처 공동 추진 강화

< 7대 SEED 프로젝트 ('27년 정부안 약 4조원) >

연번	분야	구성	주요 추진 내용
1	미래 청정 에너지 SEED	SMR 주관: 과기부, 원안위 참여: 기후부, 산업부,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5년 경수형 i-SMR 상용화,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2		핵융합 주관: 과기부 참여: 원안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실증로) 개발 2030년대 핵융합 전력 생산 실현
3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주관: 기후부 참여: 과기부,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초고효율), 수소(수전해 시스템 국산화) 풍력(경제성), 전력 그리드(산업화)
4	차세대 프론티어 SEED	양자 주관: 과기부 참여: 방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9년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2035년 양자 칩 제조 1위
5		우주항공 주관: 우주청 참여: 과기부,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달 착륙, 2035년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차세대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
6		첨단바이오 주관: 과기부, 복지부 참여: 산업부,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AI바이오 인프라 구축 2035년 BCI 제품 상용화
7	대도약의 기반SEED	첨단 공급망 (핵심광물·소부장) 주관: 산업부 참여: 과기부, 기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산업용 소재, 희소자원 대체·저감 소재 광물 안보망, 시장 창출

※ 9.30. 합동계획 기준, 세부 역할·참여 범위는 이행전략 수립 시 구체화